■ 주요활동 내용

1. 러시아 로스토프주 올긴스까야 무국적 고려인 면담

○ 올긴스까야 지역은 로스토프주 중심부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는 도시로써 이곳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800여명임.

☞ 올긴스까야는 주정부가 고려인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도심지역이고 또 경찰의 단속도 심해 무국적 고려인의 수가 적은 지역임.

☞ 올긴스까야 고려인협회장은 올긴스까야에서 200Km 떨어진 '볼고돈스끄'에는 약 1,000명의 고려인이 거주 중이며, 이들중 약 50-60% 정도가 우즈벡 여권은 가지고 있으나 러시아국적이 없는 '무국적고려인'으로 추정된다고 함.

○ 면담자

▶ **최 알렉산더(1982년생, 미혼):**

- 2004년 러시아로 왔으며, 우즈벡 여권은 모스크바에서 분실하고, 현재는 여권사본만 지니고 있으나 그마저도 2007년 유효기간이 만료됨.
- 병환중인 이웃집 고려인 할머니를 돌보며 얹혀살고 있음.

- 일용노동자로 일하면서 월 48만원의 수입으로 생활함.
- 모스크바주재 우즈벡대사관에 가서 다시 여권을 만들어야 하지만 경비 가 많이 들어 하지 못하고 있음.

▶ 리 블라디미르(1960년생, 러시아 국적 여성과 동거중)

- 2002년 입국했으나, 2006년 4월 우즈벡 여권 만료됨.
- 어머니는 러시아-카자흐스탄 국경에 거주중이며,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고, 형님 5명도 러시아 국적 보유중임.
- 현재 러시아국적 여성과 동거중이며, 자녀는 없음.
- 동거녀가 소유한 땅에서 오이농사를 짓고 있음.
- 월 수입은 28~32만원 정도임.

▶ 한 마뜨베이(1962년생, 기혼, 러시아 국적자)

- 본인은 8살이던 71년에 우즈벡에서 러시아로 이주함.
- 91년에 부인이 우즈벡에서 러시아로 놀러와 교제후 결혼함.
- 95년에 부인(71년생)과 자녀 2명(현재 15살, 13살)이 아버지 병구완차 우즈벡에 간 이후로는 본인이 우즈벡을 오가며 생활해 왔음.

- 그러나 부인과 자녀가 우즈벡에서 여권을 만들어주지 않아 러시아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음.
- 자녀들은 우즈벡에서 러시아학교를 다니고 있음.
- 본인은 누이집에 얹혀살면서 시장에서 잡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

☞ 올긴스카야 무국적 고려인들은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준비 시간이 많이 걸리며, 은행에 일정액의 예치금이 있어야 하므로 어렵다고 말함.(※CIS출신자들에게는 은행예치금이 필요 없지만 무국적 고려인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

☞ 무국적 고려인은 신분이 불명확한 관계로 막노동, 농사, 잡일 등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의 수입은 한 달에 약 3-40만원(320달러, 10,000 루불)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러시아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최소 월 800달러(25,000루불)는 벌어야 한다고 함)

2. 러시아 로스토프주 비쇼홀리 무국적 고려인 면담

○ 비쇼홀리지역은 로스토프주 도심에서 북동쪽으로 100km 떨어진 지역으로써, 러시아 국적이 없는 23명의 고려인이 면담에 참석함.

- 이들은 대부분 부모가 무국적인 경우 자녀들의 교육, 의료보장 등이 문제가 된다고 말함.
- 덴 라리사(51년생)라는 여성은 우즈벡 출신자로 남편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거쳐 러시아로 들어왔음. 그녀의 딸(26세)은 고등학교를 나오기는 했으나, 졸업장이 없어 대학교에 진학이 안 되고, 변변한 직장을 갖기 어려워 농사를 짓거나 잡일을 하고 있다고 함. 손자 역시 무국적 상태라고 말함. 이와 같이 3대가 무국적 상태로 지내는 가족도 있음.
- 박 드미트리(53)와 김 예카테리나(51) 부부는 본인들이 무국적자라

아들(26)과 딸(22) 모두 무국적자 신세이며, 아들이 낳은 손자 두 명(9살, 5살)과 딸이 낳은 손녀(2) 역시 무국자라고 말함. 2년 전 딸이 병원에서 손녀를 낳았는데, 의료비 지원이 안 돼 병원비만 2만5,000루불 지불하고, 이후 빚까지 지게 되었다고 함. 부부는 소작과 날품팔이로 월 1만 루불을 버는데, 벌금으로 1,000~5,000루불까지 내 봤다고 함.

- 덴 아파나시는 "의료와 교육 혜택을 못받고,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며, 해외여행도 불가능하다"고 말함.
- 허 유리(62세)는 국적 없이 지내다보니 연금도 못 받는다고 말하면서,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연금이 절실하다고 말함.(여자는 55세, 남자는 60세 때 최소 월 2,400루불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함.)
- 이들 중 2명의 남성은 수년 전 모스크바에 갔을 때, 불심검문에 걸려 여권을 경찰에 빼앗겼지만, 나중에 경찰이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했다고 함. 이후 거주등록증이 없어 지금은 아무런 서류가 없는 상태라고 함.

☞ 이들 대부분은 조상중 누가 러시아로 오게 되었는지, 선조의 고향은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각박한 삶을 살고 있음.

○ 비쇼홀리 고려인협회장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인구는 약 1,200명이며, 러시아 국적을 가지지 못한 고려인은 15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 비쇼홀리 고려인연합회는 무국적 고려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등, 동포애와 협동심을 발휘하고 있음.

☞ 무국적 고려인들도 "먹고 사는 것은 그런데로 하고 있으나, 국적이 없어 의료보험, 연금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자녀들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 진술함.

☞ 러시아에 무국적 고려인이 많은 이유는 정부가 매년 쿼터제로 국적

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국적을 받지 못하고, 또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렵고,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함.

☞ 비쇼홀리 무국적 고려인들은 월 30-40만원(320달러, 10,000루불)의 수입으로 근근히 살고 있다고 함.

☞ 불심검문에 적발될 시, 벌금 1,000루불 정도를 내고 풀려나기도 하지만, 추방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함.

☞ 로스토프주에서는 비쇼홀리, 바따이스크, 뿔레쇼프카 등이 무국적 고려인 밀집지역이고, 그 외 쏠로니, 보즈드니예프까, 그라스노예즈나먀에도 무국적 고려인이 많이 산다고 함.

3. 로마낀 게나지 삐트로비치 로스토프주 정당공공단체소수민족 부위원장 면담

○ **로마낀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로스토프주에는 51개 민족이 어울려 살고 있고, 고려인은 15,000명 정도가 거주중임.
- 주정부는 소수민족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있음. 로스토프에는 여러 민족협회가 있으며, 이들 단체가 교육문제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있음. 그 중 한국교육원의 활동도 매우 고무적임.
- 무국적자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러시아 국적을 못 받고 있을뿐, 근본적인 국적문제는 없음.
- 또한 국적문제는 주정부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연방정부에서 해결할 문제임.

○ **이범관 의원**

- 무국적고려인들은 그들이 무지하고, 경제력이 없어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함.
- 그러나 그들은 단순한 불법체류자들과는 다르게 봐야 함. 그들의 선조가 애초에 소련으로 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봐주기

바람.

- 그들로 하여금 러시아의 법과 절차를 따라 국적 취득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정상적인 러시아인으로 생활하도록 도와주려고 함. 이는 러시아의 사회질서 유지에도 도움이 됨. 합법적인 국적취득 과정에서 로스토프주 정부에서 호의적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것임.

☞ 로마낀 부위원장은 재량권 없이 연방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관리로서, 러시아 정부가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소수민족이 국적을 부여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로스토프주 무국적 고려인의 체류자격 취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주 관리에게 주지시키고, 관심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동 면담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임.

4. 이고르 게르레노비치 국적문제전문변호사 면담

○ 이고르 게르레노비치 변호사 약력

- 55년, 우즈벡 태생
- 부모는 연해주 출생. 증조할아버지는 함경북도 출신
- 1995년부터 러시아 거주중. 우즈벡을 오가며 활동중
- 군검찰청에서 대령으로 예편함.
- 2000년부터 모스크바 거주중.
- 국적회복 절차를 기술한 책자 발간(주러시아대사관에서 비용보조)
- 주러시아 대사관이 볼고그라드, 로스토프주 고려인 대상 설명회 개최시 참석하여 국적취득 절차 및 방법 설명해줌.
- 2008년까지 약 200명의 고려인들에게 과거 소련 정부로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재판을 통해 입증해 그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정부보조금, 세금감면, 휴양지 이용권, 연해주 토지에 대한 보상금 등의 혜택을 받게 해줌.

○ 게르레노비치 변호사 발언 요지

- 러시아에는 'CIS지역 국적자'들이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많음. 최근 경제적 이유로 이들의 러시아 입국이 급증하는 추세임.
- 대개 국적취득 비용은 세금과 여권 비용 등을 합해 약 1,000루불이 필요함.

- 국적취득 과정은 '임시체류허가증→영주권→국적 취득'의 과정을 거침. 체류허가를 받으려면 쿼터에 들어가야 함.
- 모스크바시가 체류허가관련 쿼터를 부여해줌. 작년에는 1,000명을 주었음. 쿼터제라 국적을 받으려는 대기자가 많고, 따라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도 있음. (약 1,500루불이 뇌물로 들어가기도 함)
-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들은 모스크바에서 국적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임. 따라서 농촌지역으로 가서 받는 것이 유리하고, 고려인들에게도 그쪽으로 권유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지역은 일자리가 없어 무국적자들이 지방으로 가기를 꺼리고 있고, 오히려 모스크바 근교로 몰려들고 있음.(선교사에 의하면 모스크바 근교에 몰린 무국적자는 35,000-40,000명에 이른다고 하며, 이들은 우즈벡 국적자뿐아니라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진 사람도 많다고 함. 대부분 고려인 네트워크를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고, 고려인 집 주소에 거주등록을 하며, 잡일을 해서 번 돈으로 고향의 가족을 부양한다고 함.)
-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방 이민청과 경찰청에서 관할함. CIS지역 출신자와 극동지역주민은 6개월 거주시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함. 이에 반해 기타 외국인의 경우 러시아내 거주 5년이상, 20만루불 상당의 은행예치금이 있어야 가능함.
- 한국정부가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하면, 무국적고려인들은 아마도 응할 가능성이 큼. 한국정부가 실태조사를 시작한다면 나 역시 그 사업에 협조할 의향이 있음.
- 우즈벡과 카자흐스탄에서도 내가 발간한 책자를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람.
-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근 협조적으로 나와서 무국적고려인문제가 진척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모델을 러시아에서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 우크라이나에는 무국적고려인 수가 적지만, 러시아에는 너무 많아서 실정이 다르다고 봐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는 CIS지역 주민을 위한 단순화된 이주프로그램이

별도로 가동되고 있으므로 이 제도의 틀 내에서 협조를 받을 수는 있을 것임.

- 러시아 연방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협의해야 할 것임. ▶특별위원회 또는 전문가그룹을 조직하자고 제의하거나, ▶실태조사는 한국정부가 고려인단체와 협력해 실시하며, ▶그 후에 러시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 규제완화를 요청하면 효과가 있을 것임.

5. 예고르바 예까쩨리나 유리예브나 러시아 연방이민청 부청장 면담
– 스베트라나 빅토로보나 스테파노바 국제협력담당관(과장) 배석

○ 유리예브나 부청장 모두 발언

- 러시아는 역동적으로 이민법을 활성화하고 있는 중임. 오늘도 나는 이민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민시스템을 체계화하는 입법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왔음. 이러한 업무에 수준높은 전문가를 모시는 것이 나의 관심사임. 한국의 이민시스템에 대해 관심이 많음.
- 6월에 한국의 외교부, 법무부 방문단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기업인들에 대한 복수비자 부여에 대한 협의를 하기로 했음.

○ 이범관 의원

- 작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으로 양국의 우호관계가 증진중임.
- 오늘은 CIS출신 고려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한국정부가 이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런 다음 그들에게 러시아 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러시아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함. 그 과정에서 그들이 필요한 법률적 조언이나 비용부담 등을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고자 함. 이런 일에는 시간이 걸릴 것임. 그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가 우호적인 생각으로 도와주었으면 함.

-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국적취득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도와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램임. 그리고 한국정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러시아 지방정부도 도와주면 좋겠음.
- 실태 파악이 끝나면 대책을 강구할 것임. 예를 들면, 러시아정부 관계자, 법률전문가, 고려인협회 관련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중임. 이런 방안을 당장 시행하자는 것은 아니고, 한국정부의 실태조사 이후 그 결과를 가지고 논의해볼 수 있다는 것임.
- CIS고려인의 러시아 체류 문제는 사실상 불법적 상황이며, 그들 개인의 문제임. 그러나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그들이 합법적으로 소련연방에서 잘 살다가 연방해체시 무지하고, 가난해서 법적 지위를 찾는 시기를 놓친 사람들이므로 도와주려는 것임. 러시아에서 범법행위를 한 사람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자는 것이 아님.
- 특히 이들의 자녀문제는 교육, 의료, 구직 등의 분야에서 매우 심각함.
- 한국정부는 최대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CIS출신 고려인들이 정상적인 러시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책무로 느끼고 있음. 고려인들이 러시아의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러시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앞으로 많은 관심을 당부드림.
- 초보적인 조사에 의하면, 무국적고려인의 90% 정도는 CIS 국적을 취득했다가 러시아에 들어와 여권유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여권을 잃어버려 무여권 상태가 된 사람들이라고 함. 아무런 신분 입증 근거(서류)가 없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함.
- 그들을 지도해주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음. 예를 들어 우즈벡 시민권자가 러시아국적을 가지려면 우즈벡으로 가 서류를 구비하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들이 일시적으로 생업을 그만두고 우즈벡으로 가 오래 있어야 하는 일 자체

가 쉽지 않음. 또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들은 경제력이 없음. 그래서 우리 정부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러시아정부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도와달라는 것임.

○ **유리예브나 부청장**

- 무국적고려인의 2-3세 문제는 우리의 공통된 관심사이며, 고려인들의 합법적 체류문제가 정상화되도록 우리 정부도 노력중임. 러시아정부는 민족차별을 두지 않고 협조를 제공하고 있음.
- 의원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CIS 고려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해 오기 전에 CIS국가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음. 러시아정부는 CIS국가 시민들에 한해서는 임시체류허가를 내줄 때 단순화된 절차를 적용하고 있음. CIS 시민에게는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20만 루불 상당의 재산 증명이 없어도 됨. 단지 소득증명(본인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증명서류)만 있으면 됨.
-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개 CIS 시민들은 서류상 문제만 없다면 임시체류 허가나 일자리를 찾기가 훨씬 쉬움.
- 제때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청기간이 지난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찾아옴. 우리는 이들을 최대한 도와주고 있으며,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음.
- 오늘 의원님과 복합적이고 포괄적이면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음. 말씀하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 대사관과 러시아 외교부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외교부에 주도권을 양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임. 물론 의회간, 정부간 협조도 필수적임.
- 경제인에 대한 복수비자문제 논의를 위해 한국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나면, 나도 한국을 답방할 예정임.